

빨 래

빨래줄에 두다리를 드리우고
흰빨래들이 껏속 이약이하는 午後,

쨍々한 七月햇발은 고요히도
아담한 빨래에만 달린다.

一九三六

빨 래

빨래줄에 두 다리를 드리우고
흰 빨래들이 껏속 이야기하는 오후,

쨍쨍한 칠월 햇발은 고요히도
아담한 빨래에만 달린다.

1936.